



인천지역 학생 휴식에 관한

토론회

일시: 2014년 8월 13일 오후 4시
장소: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주최: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목차

1. 발제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라일락

2. 토론

- 교사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기획국장 최선정)
-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토론기획단 (계산고등학교 2학년 김훈)
- 학생 (미추홀외국어고등학교 이건우)

3. 보고서

- 실태조사 분석자료

[발제문]

발제문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활동회원 라일락

휴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당연한 권리이다. 하지만 한국의 학생들은 과도한 학습시간으로 제대로 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PISA의 조사에 따르면, 전체 청소년의 일주일 학습시간은 OECD 평균 33~34시간 정도인 데 반해, 한국은 49시간에 이른다. 또한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일주일에 약 70시간, 평일 하루 약 10시간 이상 공부를 한다. 이처럼 많은 학생들이 너무나 이른 등교시간과 그에 비해 늦게 끝나는 정규수업, 거기에 더해지는 방과 후 학교, 보충수업,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휴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느꼈던 경험이 있다. 내가 다녔던 중학교는 지역에서 나름 유명한 공립중학교였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진학한 나는 갑자기 늘어난 수업시간과 과목 개수, 그리고 무엇보다 치열한 경쟁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 첫 시험에서 주변의 기대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았고, 등수에 따라 나눈 수준별 이동 교실에서 나는 세 개 반 중 낮은 반에 들어가게 되었다. 무엇이 문제인지 고민했지만, 첫 중학교 생활에 적응하느라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고, 그렇게 2학년이 되었다.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절대적인 학습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결국 나는 수면시간을 줄이고 그 시간에 부족한 공부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1시였던 취침시간을 새벽 2시로 늦추고, 나는 새벽 1시까지 독서실에서 공부했다. 독서실에서 운행하는 가장 늦은 버스를 타고 피곤한 몸으로 새벽에 집에 와서 마무리 공부를 했고, 쓰러지듯 잠에 들었다.

결국 성적은 올랐지만, 나는 후회했다. 밥보다 잠이 더 급했던 탓에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항상 피로했다. 무엇보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

한국의 입시중심적이고 과열된 경쟁의 분위기 안에서, 분명 이런 경험이 나에게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성적향상을 위해 최소한의 휴식만을 취하며 공부를 하고 있고, 입시를 위해서라면 휴식쯤이야 ‘없어도 괜찮은’ 것이 된다.

2011년 10월,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가 공포되었다. 조례는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정규과정 외 학습과정에서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지난 2014년 7월 13일 제정 1000일을 맞이하였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에도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부(이하“인천지부”)로 학생들의 학습선택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인천지부는 학생들의 휴식시간/공간 등이 제대로 마련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5월 중순부

터 6월 29일까지 약 2달동안 <인천광역시 중·고등학생 실 권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인천지부가 인천지역 학생들의 실 권리에 관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내 학생의 휴식 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면시간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차 57%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게시판, 급훈 등에 휴식에 부담을 주는 표어(ex :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등)가 있다는 응답도 26%나 됐고, 교사들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수업 예·복습을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5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험기간을 주말,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뒤 연휴기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66%가 넘는 학생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휴식 시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서 “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휴식시간을 가장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입시관련 공부시간”(66%), “어른들의 눈치”(42%), “불안감 및 경쟁의식”(29%)이 순서대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급훈의 빈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수면시간, 여가시간과 그에 따른 만족도는 일관되게 중학교 1학년 모집군에서 최고치를, 고등학교3학년 모집군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2014년 6월 29일, 인천시교육청은 133개 중학교 9만6천500여명, 122개 고교 10만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선택권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방과후학교 0.5%, 자율학습 0.4% 향상된 9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수나로 인천지부의 조사 결과 실제로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서의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만족여부에 따른 휴식감정 분석결과,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편안하다”(29%), “즐겁다”(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신 것 같지 않다.”(29%), “초조하다.”(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집단 모두 휴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공부시간이 가장 높았으며,(충분-34%, 부족-46%)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에는 두 집단 모두 “공부시간 줄이기”, “어른 인식개선”, “입시경쟁 개혁”을 꼽았다.

학교 내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안내, 지원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가 넘는 응답자가 “안내,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이 또한 중학생 응답자와 고등학생 응답자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중학교에서 문화,여가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응답은 55%인 반면, 고등학교는 41%로 그쳤다.

또, 인천지부는 실태조사에서 자세히 드러나지 않은 기숙사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진행했다. 오로지 입시 경쟁 위주로 돌아가는 한국의 교육 현실 속에서, 기숙사 학생들은 비기숙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학습에 투자하길 강요받고 있다. 그들은 적절한 휴식시간을 보장받지도 못하고, 그나마 있는 휴식시간마저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쉬기도 어렵다.

먼저, 휴식에 있어서 잠을 언제, 얼마나 잘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인에게 적절한 수면 시간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고, 그렇기에 그 시간은 본인이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인천지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기숙사 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수면 선택권은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 모든 학생들은 기상 및 취침시간이 똑같고, 이 정해진 시간을 강제적으로 지켜야 한다.

심지어 인천지부가 조사한 학교 중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 학생들을 감시하는 곳도 있었다. 인터뷰에 응해준 A씨(미추홀외고 1학년 재학 중)는 “기숙사 내에 감시 장치가 총별로 2~3개씩 설치되어 있다”며 “사감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영상을 볼 수 있는 모니터가 있다. 평소에는 많이 보지 않는 것 같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새벽 3시까지 모니터를 보며 소등시간 이후에 돌아다니는 학생들을 잡는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정해진 취침 시간 이후의 개인행동을 통제함으로써 수면을 취하고 싶지 않은 학생도 강제로 취침을 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본인이 선택해야 하는 수면 시간을 누군가에 의해 규제를 받게 될 경우 이것은 휴식권 침해인 동시에 자기결정권 침해이다.

기숙사의 모든 생활은 오로지 학습만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휴대폰 사용은 학습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금지되고 있고, 노트북은 학습을 위한 용도가 아닌 이상 사용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휴식시간에 휴대폰이나 노트북을 사용하고 싶은 학생들은 기숙사 규정에 의해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다. 과연 ‘학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권리를 제한받는 것이 옳은 것일까? 누구나 자신의 휴식시간을 어떤 방식으로 보낼 것인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은 이 당연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학교는 이들에게 전자기기를 ‘학습을 위한 도구’로만 사용하길 강요하고 있다.

나는 “공부 다 하고 쉬어라”라는 말은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학습과 휴식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휴식은 주어진 ‘학습’을 마쳐야 주어지는 것이 아닌, 학습과 별개로 당연히 적절히 보장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학생 휴식권과 관련된 정책 현황과 문제점,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논의를 해보아야 한다. 휴식은 중요하다. 여러번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학생들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라!

[토론1]교사

청소년 휴식권 보장을 위한 토론문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기획국장 최선정

□ 청소년인권행동 아나수로 인천지역모임에서 2014년 5월 10일~ 6월 28일 7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휴식에 관한 인천지역 학생설문조사에 따르면 수면시간과 휴식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학생이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방과후 학교나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자율적인 선택권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보장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역시나 입시관련 공부시간이 청소년의 휴식권을 방해하고 있는 제1의 원인이다.

□ 즐거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먼저 건강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인천교육은 양적투입 중심의 과도한 강제학습노동 정책으로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여 자기 파괴적인 수준에 까지 이르렀다. 교육단체인 '인권친화적학교'와 '너머운동본부'가 지난 5월 7일~15일 초·중·고에 재학 중인 학생 1,6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생이 원하는 교육정책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9시 등교시간 도입'이 가장 많은 호응을 받았다.

□ 인천교육청은 이러한 학생들의 희망을 적극 반영하여 등교시간을 획기적으로 조정하고, 학생들이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라는 불만을 제기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초,중,고 등교시간과 등교 후 정규수업 시작하기 전까지의 아침시간 활용에 대한 전면 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0교시, 조기등교, 아침활동의 효율성과 선택권 부여 여부, 만족도 등'에 대한 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고, 집중력 향상을 통한 정규수업 강화까지도 도모할 것이다.

□ 0교시는 전면 폐지하고, 아침활동도 '방송수업, 문제풀이 등의 편법적 0교시'를 근절하고, '일과 준비, 학급회의, 독서, 담임교사와의 소통·상담시간'으로 개편해 나갈 것이다. 방학 중 보충수업 시작 시간에 대해서도 일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너무 이른 시간에 등교시켜 '방학 아닌 방학'이 되지 않도록 하고, 휴식권을 보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방학 중 보충수업 시수에 대한 일정한 제한도 가할 계획이다.

□ 전남교육연구정보원 소속 전남교육정책연구소가 2012년 7월에 실시한 '전남지역 초·중등학생 종합 실태파악'을 위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학생 5명중 1명 아침식사를 안하거나, 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아침식사를 잘 하지 않는 학생의 비율은 학교급 및 학업성취도 그룹별, 성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의 경우 '전혀 먹지 않는다'는 학생의 비율이 12.0%에 달하였고, '먹지 않는 편이다'로 응답한 학생도 19.8%이었다. 한편, 아침식사의 정도와 학업성취도와도 관련이 있었는데

데, 상위권의 학생일수록 아침식사를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 전남지역 학생들의 실태이지만, 인천의 학생들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본다. 창피한 고백이지만, 인천의 학생들을 책임진다는 인천시교육청에서 그동안 인천의 학생들에 대한 종합적 실태조사 조차 제대로 이뤄진 바가 없다. 그러나 유사한 조사들의 결과와 많은 전문가들의 조언에 의하면, ‘아침식사를 하는 것이 학생들의 건강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학생들의 성장에 이렇게 중요한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이른 아침 등교 시간’이다. 앞선 조사에서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 또는 ‘먹지 않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전남지역 학생들은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아침에는 입맛이 없어서’(42.0%),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36.8%) 등으로 응답했다. 수면 부족,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바로 학교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 학생들이 아침식사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라고 분석할 수 있다. 시급히 아침등교시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이유다.

□ 물론 가정 경제사정이나 부모의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족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학생들도 있다. 이러한 여건은 학교 등교시간만 조정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에서 아침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에서 공적으로 아이들의 아침식사를 제공함으로써 교육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장하는 노력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1) 인권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가. 인권 친화적으로 학생생활규칙 재정비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라는 말이 있다. 대한민국 학교의 열악한 인권상황을 웅변해 주는 말이다. 인권 친화적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학교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 규정하고 있는 학칙, 그 중에서도 학생생활규정을 인권 친화적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체벌과 훈육 중심에서 학생이 스스로 만들고 지키는 생활규칙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또 체벌의 대체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벌점제도에 대해서도 인권 침해적 요소가 없는 지 살펴 폐지 내지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생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점수를 매기고 상과 벌을 가하는 것이 교사와 학생간의 교육적 관계 맺기라고는 보기 힘들다.

나. 학생자치로 꽃 피는 인권

학생인권을 보장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것으로 착각하거나 교사의 권리를 빼앗기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곤란하다. 학생, 학부모, 교사는 교육이라는 목적을 함께 추구하는 동반자이고,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 줘야 한다. 특히 아직까지는 학교 내의 인권상황이 가장 열악한 학생의 인권을 향상시킬 때,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인권이 향상된다는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인권이라는 것은 성별, 나이,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대학교에 진학 후에 누려도 되는 ‘유보할 수 있는 권리’도 아니다. 학생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현실을 분석하고 대안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교사와 학생이 ‘인권동아리’를 운영하여 학교의 인권감수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학생인권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인천교육정책이 학생인권보장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교육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인권친화적인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교자율평가지표에도 학생인권보장지표를 넣어 학교공동체가 함께 인권상황을 개선하려는 자발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다.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인권교육 강화, 노동인권교육 강화

인권교육을 강화를 통해서 ‘소통과 협력,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실현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학교 밖에서의 청소년 인권 보장을 위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고등학생들 특히 특성화고학생들에 대한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노동현장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인권 침해를 받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기성세대들이 노력해야 한다.

교육청에서는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인권 보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피해를 구제할 담당 부서와 인력을 배치하여 약자인 청소년들을 도와야 한다.

청소년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장애인권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을 보장하는 태도를 어릴 때부터 기를 수 있도록 생활 속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장애인 당사자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장애인 권교육도 실시할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과정을 인천교육청에서 강조하는 교육과정으로 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인권교육의 여건 마련이 될 것이다.

교원들에 대해서도 인권교육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교육청에서 학교인권교육 전문강사단을 구성하고 학교에 교육적 지원을 해야 한다.

(2) 학생인권보장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가.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의

학생인권조례¹⁾는 학생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존중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생인권의 지향점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타인에 대한 공감이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학교폭력근절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기도 하며, 학생인권 이 보장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바탕이 된다.

1) 학생인권 조례 추진 현황 (2013년 12월 현재)

지역	조례명	상태
서울	학생인권조례	현재 대법원 계류 중 (무효확인소송)
광주	학생인권조례	현재 시행중
경기	학생인권조례	현재 시행중
강원	학교인권조례	도의회 반대로 계류 중
충북	학생인권조례	도의회 반대로 각하
전북	학생인권조례	대법원 소송 중
전남	교육공동체 인권조례	도의회 재보류 ('12. 9. 19)
경남	학생인권조례	도의회에서 부결 ('12. 5. 22)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곳은 경기와 광주 두 곳 정도이다. 서울과 전남에서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했지만, 교과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걸어 놓은 상태이고, 강원, 충북, 전북, 경남 등에서는 도의회의 반대로 인해 부결되거나 유보된 상태이다.

인천에서는 2011년에서 2012년 동안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를 구성하여 인천에서의 학생인권조례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으나 이명박 정부의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탄압과 인천시교육청의 조례 반대 등의 여건 미성숙으로 조례안의 의회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실시하고 있는 지역이 보수성향의 교육감 지역 및 인권조례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3~4배 더 많이 감소하고 있다는 통계²⁾만 보더라도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학교를 혁신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 협력의 ‘학생인권위원회’의 설치, ‘민주·인권교육센터’ 설립 등도 고려해 볼 만하다.

특히 학생인권을 선언적 수준에서만 보장하고 있는 교육관계법령을 개정하려는 노력을 인천시민들과 함께 해 나가야 조례 제정도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

나. 학생인권조례 등 제도적 장치들을 통해 보장해야 할 학생인권³⁾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되어야 할 학생의 인권에 관한 사항 인권교육과 인권실천계획 등 학생 인권의 진흥에 관한 사항 학교인권옹호관의 설치 등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관한 사항
--

다. 청소년 휴식권 보장을 위한 방안

학생인권조례제정을 통하여 학교의 인권친화적 문화를 조성하고, 민관협력의 학생인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학교가 실질적으로 인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학교혁신을 추진해나가야 한다. 더불어 학습선택권 조례가 제대로 지켜지도록 학교를 모니터링하고, 교육청이 이를 강제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장에 입시제도를 바꿀 수 없는 근본적 한계가 있으나, 행복하고 건강한 청소년이 행복한 학교를 이룰 수 있으므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실천해야 할 때이다.

2) ‘2013년 상반기 학교폭력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교육감이 진보성향인 지역 및 학생인권조례 실시 지역이 보수성향의 교육감 지역 및 인권조례 미실시 지역보다 학교폭력이 작년에 비해 3~4배 더 많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2013.11.07>

3) 학교인권을 위한 인천시민사회연대에서 마련했던 내용임.

[토론2] 청소년회관 토론기획단

토론문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_토론기획단

인천계산고등학교 2학년 김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론회의 발제를 맡게 된 계산고등학교 2학년, 인천광역시 청소년회관 토론기획단 소속 김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관활동과 휴식'에 대해 발표할 것이며 발표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제 의견이나 발표내용이 미흡 지만 나름대로 고심하면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이 인천광역시 청소년 회관(이하 수련관)은 청소년 수련시설 중 청소년 수련관에 속하며 이는 다양한 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 수련 시설이라는 내용이 한국 청소년 수련시설 협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청소년 회관은 학교에서 할 수 없었던, 학교에는 없었던 일들을 시작할 수 있던 공간이자, 이제는 제가 이런 토론회에서 발제를 할 수 있게 성장시켜준 기관이기도 합니다. 사실 수련 관에서 활동하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번도 해 본적 없는, 공연을 준비하는 일이라던가, 공무원들이나 하는 줄 알았던 정책제안서를 제출하는 일이라던가, 학교에서는 짧은 시간밖에 할 수 없었던 춤 연습을 하루 종일 할 수 있고, 대회도 나갈 수 있는 기회 등 정말 청소년들이 수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편 휴식이란 '하던 일을 멈추고 잠깐 쉬, 활동을 한동안 중지하거나 서서히 하는 것,' 이라고 백과사전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생명과학대사전(2008) 에는 '휴식은 신체적 정신적 피로의 회복을 꾀하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체력이나 기력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활동에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로써 삶에서 휴식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휴식과 같이 사용하는 여가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충전, 휴식을 겸한 다양한 취미활동이 포함되는 경제 활동 이외의 시간으로 개인이 처분할 수 있는 자유로운 시간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생의 휴식은 학생에게 가장 주된 일인 공부로부터 잠시 벗어나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신체적 정신적 피로를 감소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이러한 휴식은 공부라는 활동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보았을 때 수련시설인 수련과는 학생들의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휴식공간이나 휴식 설비를 갖추는 일이 필요합니다. 청소년 회관은 청소년들의 휴식과 여가를 위해 댄스연습실, 만화방, 밴드연습실, 야외농구장, 탁구장 등을 갖췄으며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부평청소년 수련 관은 공연을 할 수 있는 대규모 공연장이 있고, 다락에는 노래방 시설도 구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하여 수련시설에서 활동하는 많은 분들이 느끼는 것은 이것 하나일 것입니다. 바로 '시간이 없다.' 이죠. 매일 7교시에 보충수업까지 듣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들여 수련시설에 오기는

쉽지 않습니다. 만약 온다고 해도 활동을 마치면 자정이 넘는 시간이 되어 귀가하게 됩니다.

절대적인 휴식을 위한 시간도 적은 것도 사실이지만 회관 활동의 한계를 느끼게 하는 것은 ‘동아리끼리 모일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토론기획 단이나 다른 단체들은 여러 학교의 여러 학생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단체이고 여러 학생이 모이기 위해선 공통적으로 생기는 시간이 필요한데, 학교의 재량에 따른 시험기간, 행사 등은 동아리 활동에 차질을 일으키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접근성에 대한 문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청소년수련시설현황및활성화방안연구(신윤경)에 따르면 인천시내 청소년 문화의 집이 수련관 보다 이용자 수가 많음을 파악하며 청소년 시설의 접근 성이 입지조건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구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청소년 수련관은 접근 성이 약화되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 버스 타고 30분 거리로 수련관 가기보다 집 앞 pc방 가는 게 더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해보면 청소년 수련시설은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휴식을 위한 장소로 작용하고, 그러한 설비도 다소 준비되어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학교생활로 인한 시간의 부재, 또한 거주지와 생활권과 거리가 먼 청소년 수련관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 저는 2가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교육과정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수련관과 연계하기를 요청합니다.

수업시간 외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이라는 것이 학교마다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학교마다 시행방식이 달라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희 학교는 ‘연극 시간’으로써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간을 만족하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제 학우 중 하나는 자신이 원해왔던 진로와 비슷하여 매우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이 연극 시간이 자신들이 체험활동을 한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제시간을 빠진 수업을 보충하는 시간이나 자율학습은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명 창의적 체험 활동은 도입목적으로 ‘미래의 인재는 새로운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고루 갖춘 인재이다. 이러한 창의인성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나친 교과 지식위주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양하고 창의성과 인성을 강화하는 다양한 체험중심의 교육을 위함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보아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학교는 수련시설과 연계하여 창제시간을 계획하고, 운영하여 보다 많은 학생들이 개개인이 원하는 체험활동을 함으로써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간접적으로라도 해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은 휴식이라는 간접적인 편익도 누리고 더해서 교육부가 본래적으로 원하던 지침인 창의적 인재 양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둘째, 수련시설이 수련관 밖으로 나와 적극적 활동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수련시설이 지리적 위치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즉, 상대적으로 어떤 이에게는 가깝지만, 어떤 이에게는 먼 곳이기도 한 것이 특징입니다. 수련시설이 제공하는 편의나 휴식의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천시립도서관에서 진행하는 이동식 도서관을 아시나요? 도서관과 거리가 먼 사람들을 위해 사람들이 많은 도심부터 거주하는 사람이 적은 지역까지 찾

아가 도서의 기회를 나눠 주는 정책이며 활동입니다. 이와 같은 유동적인 활동을 수련시설에서 계획, 확대한다면 청소년과 수련시설과의 지리적, 심리적 거리도 감소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결과적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자주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공공기관과 연계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역 주민센터나 구청, 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이용하여 주변 청소년과의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수련시설의 본래 목적인 수련은 물론 휴식을 원하는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수련관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면서 적극적 청소년과 적극적 회관의 관계의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는 한국의 경제보다 교육이 더 불안하다.’ 라고 말하고 이 내용으로 책가지 출판하는 이 상황에 학교를 다니는 우리세대 학생들은 정말 운이 없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늘어가는 문화적 기회에 비해 우리 학생들은 참여하기 보다는, 공부하다 쓰러지고, 공부하다 병이 생기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일은 우리가 더 나아갈 발판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이라서 여유가 없다고 생각만 하면, 이러한 일은 후에도 반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와 같이 현재 이 상황을 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 노력하고 대화하고, 소통하는 활동이 이루어진다면, 지금 우리 학생은 몰라도, 우리의 동생, 적어도 우리의 자녀는 후에 좀더 나은 학교생활을 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참여를 많이 부탁 드리며 본 토론자의 발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론3] 학생

외국어고등학교 학생의 휴식권 실태

미추홀외고 1학년 이 건우

저는 기숙형 외국어고등학교에 재학 중입니다. 전교생이 기숙사를 쓰는데다가 외고라니 벌써부터 굉장히 ‘빡세겠구나’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여러분께 숫자 두 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58과 67인데요. 우리 학교 휴식권 실태를 잘 알려주는 숫자이니 이 숫자를 생각하시면서 발제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일과를 설명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기숙사에서는 6시 반부터 기상방송이 울립니다. 퇴실 시간에 맞춰 세면과 호실정리를 마치고 퇴실해야 합니다. 퇴실시간은 1학년은 7시 10분, 2,3학년은 7시 20분입니다. 12시 40분이 취침 시각이므로 수면 시간은 5시간 반에서 6시간정도입니다.

기숙사 퇴실 후 아침식사를 한 뒤 7시 35분부터 학교 일과가 시작됩니다. 다행히도 바로 수업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아리 활동이나 스터디 서클과 같은 학생 자율 활동을 한 시간하고 정규수업을 듣습니다.

요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개 정규수업은 7교시에 끝납니다. 학교에 다른 행사가 없는 이상 8교시에는 월화수는 동아리 활동, 목요일은 1인 1악기 활동, 금요일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합니다.

학교에서 보장하는 학생 자율 활동시간이 끝난 후에는 기숙사에 들어가는 12시까지 야자를 합니다. 이 야자를 우리 학교에서는 면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면학은 3차로 나뉘어서 총 5시간 10분 동안 진행됩니다.

일주일 일과를 마치고 학생들은 토요일에 귀가를 합니다. 그런데 토요일에도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1,2학년은 오후 2시까지 면학을 하고 3학년은 오후 5시까지 면학을 하다가 귀가합니다.

물론 모든 자율학습은 학습 선택권 조례에 따라 학생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나 이 동의서는 어느 다른 학교와 마찬가지로 학생에게 선택권이 없는 형식상의 동의일 뿐입니다.

이러한 모든 면학시간과 수업시간을 합쳤을 때 나오는 일주일 총 공부시간은 58시간 30분입니다. 반면, 월요일 7시 반에 등교를 해서 토요일 2시에 귀가를 한다고 할 때 일주일동안 학교에 있는 시간은 126시간 30분입니다. 이 시간에서 식사시간과 수면시간 35시간과 공부시간을 빼면 33시간밖에 남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학생들이 쉴 수 있는 시간은 학교에 있는 시간의 3분의 1 조차도 안 됩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교과교실 이동으로 쓰이는 시간이 대부분입니다.

방학이라고 상황이 더 나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방학 자체도 3주로 굉장히 짧은데다가 1주일만 비등교기간이고 남은 2주일은 등교기간으로 학기 중과 똑같이 생활합니다. 게다가 이 2주 동안은 학생 자율 활동도 없어 학기 중보다 주 8시간 45분 더 책상 앞에 잡혀 있게 됩니다.

법정 노동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기 중에는 18시간 반이 초과된 주 58시간 30분, 방학 중에는 27시간 15분이 초과된 주 67시간 15분을 공부합니다. 물론 공부와 노동이 똑같지는 않고 수업 시간에 존다거나 야자 시간에 자기 의지대로 책을 읽는다거나 시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하거나 억지로 책상 앞에 잡혀 있다는 점에서는 노동과 비슷하지 않을까요?

귀가를 하더라도 집에서 마음 놓고 쉬기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주말 숙제를 따로 내주기 때문입니다. 매주 기본적으로 나가는 숙제만 수학 문제집, 영어 독해 문제집, 국어 비문학 문제집인데다가 이외에도 영어 에세이 작성, 영어 토론 입안문 작성, 영문학 프로젝트 준비, 전공어 학습지 등이 많습니다.

학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무더운 더위에도 불구하고, 추위에도 불구하고, 휴식시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부를 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휴식시간은 재충전의 시간이고, 소위 말하는 공신(공부의 신)이라는 사람들도 “최소한 일주일에 6시간 쉬라”고 말합니다. 또한 휴식 시간은 재충전뿐만 아니라 스스로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야자 시간에 할 수 없던 꿈을 이루기 위한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힙합과 정치를 결합시키겠다는 꿈이 있는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한 공부 중에는 입시 공부도 있겠지만 많은 노래를 들으면서 음악적 소양을 쌓는 것도 있겠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면학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휴식시간 없이는 이 사회가 그렇게도 강조하고 원하는 ‘창의 인재’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이 성적에 대한 불안을 느껴 자기 자신을 더 “쥐어짜는” 경향이 있다는 점입니다.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함에도 불구하고, 숙제와 수행평가 그리고 자기가 부족한 공부까지 챙기려면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면학 시간을 더 늘려달라고 하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시험기간이 되면 학생들은 더욱 심하게 자기 자신을 쥐어짜냅니다. 4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새벽에 공부를 하는 학생들도 있고 기숙사 소등 이후에도 화장실에서 불을 켜놓고 몰래 공부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면학 시간에는 학생들이 졸방대(졸음방지대)라고 불리는 키 높이 책상에서 졸음이 오는 것을 꼭꼭 참아 가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런데 졸방대를 사용하는 학생이 너무 많아 추가 설치해달라는 건의가 끊이지 않습니다.

왜 학생들이 자신의 휴식권 문제를 생각하긴 커녕 오히려 자기 자신을 쥐어짜기 급급할까요? 저는 이 모순된 현상에서 휴식권 문제의 원인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원인은 개개별 학교에 있지 않고 입시 경쟁에 있습니다. 입시 경쟁 자체가 학생을 불안하게 하고 학교를 입시 학원으로 전략시킵니다. 따라서 입시 실적에 더욱 민감한 특목고와 그 학생들이 다른 학교 학생들보다 더 쉬는 시간을 줄이고 공부만 하게 하는 것 아닐까요?

등교시간을 낮추고 수업시수를 줄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남들보다 더 치열한 입시경쟁의 현장에 있는 저로서는 이것만으로 학생들이 제대로 된 휴식권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입시로 인한 불안을 계속 느낀다면 지금처럼 학생들 스스로 쥐어짜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가장 근본적이고 최고의 방법은 입시 경쟁을 없애는 것이겠지요. 하지만 지금 당장 입시 경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수업시수·자습시간 조정 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만들어 학생의 의견이 직접적으로 반영된다면 공부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학생들의 불안도 최소화하고,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휴식 시간도 얻을 수 있지 않을까요.

[첨부] 실태결과보고서

학생 휴식에 관한 인천지역학생 설문조사 보고/서

2014년 8월 14일



- 목 차 -

I. 조사의 목적	14p
II. 조사개요	14p
III. 분석도구	15p
IV. 표본의 특성	15p
V. 결과 요약	16p
VI. 조사결과 표	17p
설문지	34p

I. 조사의 목적

- ‘인천시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 1000일을 맞이하여 학생의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이 보장되는지 여부와 학생 휴식 실태를 파악한다.
- 현재 학생들의 휴식시간/공간의 열악한 실태를 사회에 알리고, 학생 휴식 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II.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 집 단	인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조사기간	2014년 5월 10일~ 6월 28일
응답자수	708명
표본추출방법	거리캠페인을 통한 무작위 추출
조사방법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자기기입식 질문지법
표본오차	95% 신뢰도 수준에 오차범위 ±1.78%

Ⅲ. 분석도구 : SASW Statistics 18

IV. 표본의 특성 : ※전체 빈도와 집단별 합계의 오차는 무응답 수치임.

		빈도	%
지역	강화군	4	0.56%
	계양구	77	10.88%
	남구	22	3.11%
	남동구	114	16.10%
	동구	7	0.99%
	부평구	304	42.94%
	서구	135	19.07%
	연수구	9	1.27%
	용진군	1	0.14%
	중구	35	4.94%
집단 합계		708	100%
설립별	국공립	609	86.02%
	사립	99	13.98%
집단 합계		708	100%
학교유형	일반계	600	84.75%
	전문계	95	13.42%
	특수목적	3	0.42%
	기타	9	1.27%
	무응답	1	0.14%
집단 합계		708	100%
학년	중1	71	10.03%
	중2	128	18.08%
	중3	153	21.61%
	고1	173	24.44%
	고2	83	11.72%
	고3	87	12.29%
	무응답	11	1.55%
집단 합계		708	100%

V. 결과요약

-조사결과 전반적으로 인천지역 내 학생의 휴식 실태는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면시간이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부족하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65%를 차지했다. 당연히 있어야 할, 학생들을 위한 휴게공간 조차 57%의 학생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게시판, 급훈 등에 휴식에 부담을 주는 표어(ex :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등)가 있다는 응답도 26%나 됐고, 교사들이 쉬는시간이나 점심시간에도 수업 예·복습을 하라고 시키는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56%의 응답자가 ‘그렇다’고 답했다. 시험기간을 주말,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뒤 연휴기간에 쉬지 못하게 하는 행위 또한 66%가 넘는 학생이 경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학생이 즐겁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렵다. 실제로 휴식 시 느끼는 감정을 묻는 질문에서 “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휴식시간을 가장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것에는 “입시관련 공부시간”(66%), “어른들의 눈치”(42%), “불안감 및 경쟁의식”(29%)이 순서대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에서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급훈의 빈도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수면시간, 여가시간과 그에 따른 만족도는 일관되게 중학교 1학년 모집군에서 최고치를, 고등학교3학년 모집군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대학입시에 대한 압박감으로 인해 나타난 것으로 추측된다.

-2014년 6월 29일, 인천시교육청은 133개 중학교 9만6천500여명, 122개 고교 10만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학습선택권 보장률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대비 방과후학교 0.5%, 자율학습 0.4% 향상된 9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수나로 인천지부의 조사 결과 실제로 학생들은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에서의 학습선택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 만족여부에 따른 휴식감정 분석결과,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편안하다”(29%), “즐겁다”(27%)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나, 수면시간이 부족하다고 응답한 집단에서는 “신 것 같지 않다.”(29%), “초조하다.”(18%)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두 집단 모두 휴식을 방해하는 요인으로는 공부시간이 가장 높았으며,(충분-34%, 부족-46%)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에 대한 응답에는 두 집단 모두 “공부시간 줄이기”, “어른 인식개선”, “입시경쟁 개혁”을 꼽았다.

-학교 내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안내, 지원 또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50%가 넘는 응답자가 “안내, 지원이 없다”고 답했다. 이 또한 중학생 응답자와 고등학생 응답자 간의 차이가 뚜렷하다. 중학교에서 문화,여가활동을 안내하고 지원한다는 응답은 55%인 반면, 고등학교는 41%로 그쳤다.

VI. 조사결과 표

[1. 빈도 분석]

1. 현재의 수면/여가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빈도	%			빈도	%
수면시간	충분하다	246	34.75%	여가시간	충분하다	306	43.22%
	부족하다	461	65.11%		부족하다.	387	54.66%
	무응답	1	0.14%		무응답	15	2.12%
집단 합계		708	100%	집단 합계		708	100%

2-1. 교사들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거나, 예복습을 하라고 한다.

	빈도	%
그렇다.	398	56.21%
아니다.	309	43.64%
무응답	1	0.14%
집단 합계	708	100%

2-2.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다.

	빈도	%
휴게시설이 있다.	296	41.81%
휴게시설이 없다.	410	57.91%
무응답	2	0.28%
집단 합계	708	100%

2-3. 시험기간이 주말,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있다.

	빈도	%
그렇다	474	66.95%
아니다	228	32.20%
무응답	6	0.85%
집단 합계	708	100%

2-4. 게시판, 급훈에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표어가 붙어있다.

(ex : 네 성적에 잠이 오냐?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빈도	%
존재한다	185	26.13%
존재하지 않는다	521	73.59%
무응답	2	0.28%
집단 합계	708	100%

2-5. 아플 때 눈치보지 않고 조퇴할 수 있다.

	빈도	%
눈치를 본다.	452	63.84%
눈치를 보지 않는다.	255	36.02%
무응답	1	0.14%
집단 합계	708	100%

2-6.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도	%
안내, 지원이 가능하다	346	48.87%
안내, 지원이 없다.	359	50.71%
무응답	3	0.42%
집단 합계	708	100%

2-7.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빈도	%
선택할 수 있다	315	44.49%
선택할 수 없다.	389	54.94%
무응답	4	0.56%
집단 합계	708	100%

[다중응답 항목]

3-1. 실 때 주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빈도	%		빈도	%
원 것 같지 않다	316	44.63%	불안하다	91	12.85%
즐겁다	266	37.57%	죄책감이 든다	56	7.91%
편안하다	250	35.31%	당황스럽다	11	1.55%
초조하다	214	30.23%	기타	25	3.53%
불편하다	94	13.28%	무응답	45	6.36%

3-1. 기타의견

기타 의견	빈도	기타 의견	빈도
즐리다	7	좋다	1
아무생각없다	5	지루하다	1
피곤하다	3	편하다	1
힘들다	2	심심하다	1
그저 그렇다	2	아쉽다	1
이제야살거같다	1	집단 합계	25

3-2. 휴식시간을 가장 방해한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빈도	%		빈도	%
입시관련 공부시간	471	66.53%	문화시설 및 지원부족	73	10.31%
어른들의 눈치	300	42.37%	방해하는 것이 없음	58	8.19%
불안감 및 경쟁의식	208	29.38%	기타	21	2.97%
휴게시설 부족	100	14.12%	무응답	78	11.02%

3-2. 기타의견

기타 의견	빈도	기타 의견	빈도
휴식시간이 부족하다	3	쉬는시간마다 교사가 교무실로 부른다.	1
대입 압박	3	수행평가 숙제 등이 너무 많다.	1
친구들이 떠든다	3	예체능계열 연습	1
핸드폰	2	괜찮다	1
아르바이트	2	무응답	3
다음시간에 대한 압박	1	집단 합계	21

3-3.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빈도	%		빈도	%
입시관련 공부시간 줄이기	376	53.11%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 강화	82	11.58%
어른들의 인식 개선	332	46.89%	필요한 것이 없다.	16	2.26%
입시경쟁 교육제도 개혁	247	34.89%	기타	15	2.12%
학생 휴식공간 확충	138	19.49%	무응답	53	7.49%
문화시설, 활동 지원 강화	96	13.56%			

3-3. 기타의견

기타 의견	빈도	기타 의견	빈도
두발규제 폐지 등 개성을 존중해야한다.	3	수업시간을 줄여야한다.	1
휴대폰을 사용이 필요하다.	2	등교시간을 늦춰야한다	1
숙제를 없애자	1	시험을 줄여야한다.	1
수업 중 자습시간이 있어야한다.	1	실 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1
대학이 줄여야한다	1	무응답	2
현행 체계를 유지해야한다.	1	집단 합계	15

[시간평균]

4. 학년별 평일 수면&여가시간 분석

수면시간	인원	평균값	여가시간	인원	평균값
중1 평일 수면	71	7.10	중1 평일 여가	71	3.48
중2 평일 수면	127	6.76	중2 평일 여가	126	3.56
중3 평일 수면	153	6.23	중3 평일 여가	145	3.54
고1 평일 수면	172	5.57	고1 평일 여가	171	2.27
고2 평일 수면	82	5.61	고2 평일 여가	82	2.48
고3 평일 수면	87	5.23	고3 평일 여가	84	2.19

5. 학년별 주말 수면&여가시간 분석

수면시간	인원	평균값	여가시간	인원	평균값
중1 주말 수면	71	9.32	중1 주말 여가	69	8.66
중2 주말 수면	127	8.95	중2 주말 여가	121	7.82
중3 주말 수면	150	8.79	중3 주말 여가	142	8.38
고1 주말 수면	171	8.14	고1 주말 여가	164	6.94
고2 주말 수면	82	8.15	고2 주말 여가	78	6.58
고3 주말 수면	86	7.55	고3 주말 여가	79	6.04

6. 공/사립학교별 평일 수면&여가시간 비교

수면시간	인원	평균값	여가시간	인원	평균값
공립학교	605	6.15	공립학교	593	3.00
사립학교	99	5.53	사립학교	98	2.40

7. 공/사립학교별 주말 수면&여가시간 비교

수면시간	인원	평균값	여가시간	인원	평균값
공립학교	604	8.55	공립학교	576	7.46
사립학교	96	7.98	사립학교	88	7.20

8. 학교분류별 평일 수면&여가시간 비교

수면시간	인원	평균값	여가시간	인원	평균값
일반계	596	6.09	일반계	583	2.89
전문계	95	5.94	전문계	95	3.14
특수목적	3	4.67	특수목적	3	1.00
기타	9	5.72	기타	9	2.89

9. 학년별 등/하교시간 및 학교에 있는 시간

등교시간	인원	평균값	하교시간	인원	평균값	학교시간	인원	평균값
중1	71	7.97	중1	71	16.28	중1	71	8.32
중2	128	8.06	중2	128	15.96	중2	128	7.94
중3	152	8.06	중3	151	16.25	중3	151	8.19
고1	172	7.77	고1	171	19.63	고1	172	11.86
고2	82	7.83	고2	82	19.05	고2	82	11.23
고3	87	7.78	고3	87	19.91	고3	87	12.12

10. 설립주체별 등/하교시간 및 학교에 있는 시간

등교시간	인원	평균값	하교시간	인원	평균값	학교시간	인원	평균값
공립 고등학교	251	7.81	공립 고등학교	250	19.68	공립 고등학교	251	11.81
사립 고등학교	95	7.74	사립 고등학교	95	19.33	사립 고등학교	95	11.59

11. 일반계 학교 중 학년별 등/하교시간 및 학교에 있는 시간

등교시간	인원	평균값	하교시간	인원	평균값	학교시간	인원	평균값
중1	71	7.98	중1	71	16.27	중1	71	8.30
중2	128	8.07	중2	128	15.97	중2	128	7.90
중3	151	8.06	중3	150	16.25	중3	150	8.18
고1	120	7.73	고1	119	20.41	고1	120	12.47
고2	50	7.67	고2	50	19.76	고2	50	12.09
고3	65	7.73	고3	65	17.94	고3	65	13.09

12. 전문계 학교 중 학년별 등/하교시간 및 학교에 있는 시간

등교시간	인원	평균값	하교시간	인원	평균값	학교시간	인원	평균값
고1	45	7.87	고1	45	17.35	고1	45	9.33
고2	28	8.08	고2	28	18.04	고2	28	9.85
고3	21	8.01	고3	21	16.99	고3	21	8.88

[교차분석]

13. 학년별 수면 만족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충분하다	34	47.89%	중2	충분하다	56	43.75%	중3	충분하다	46	30.07%
	부족하다	37	52.11%		부족하다.	72	56.25%		부족하다.	106	69.28%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무응답	1	0.65%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충분하다	46	26.59%	고2	충분하다	26	31.33%	고3	충분하다	32	36.78%
	부족하다	127	73.41%		부족하다.	57	68.67%		부족하다.	55	63.22%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14. 학년별 여가 만족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충분하다	34	47.89%	중2	충분하다	65	50.78%	중3	충분하다	71	46.41%
	부족하다	35	49.30%		부족하다.	62	48.44%		부족하다.	74	48.37%
	무응답	2	2.82%		무응답	1	0.78%		무응답	8	5.23%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충분하다	61	35.26%	고2	충분하다	30	36.14%	고3	충분하다	39	44.83%
	부족하다	109	63.01%		부족하다.	52	62.65%		부족하다.	48	55.17%
	무응답	3	1.73%		무응답	1	1.2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15. 학년별분석- 교사들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거나, 예복습을 하라고 하나요?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그렇다	45	63.38%	중2	그렇다	84	65.63%	중3	그렇다	86	56.21%
	아니다	26	36.62%		아니다	44	34.38%		아니다	66	43.14%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무응답	1	0.65%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그렇다	87	50.29%	고2	그렇다	49	59.04%	고3	그렇다	42	48.28%
	아니다	86	49.71%		아니다	34	40.96%		아니다	45	51.72%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16. 학년별분석- 시험기간이 주말,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있나요?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아니다	34	47.89%	중2	아니다	55	42.97%	중3	아니다	54	35.29%
	그렇다	36	50.70%		그렇다	72	56.25%		그렇다	97	63.40%
	무응답	1	1.41%		무응답	1	0.78%		무응답	2	1.31%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아니다	39	22.54%	고2	아니다	24	28.92%	고3	아니다	19	21.84%
	그렇다	132	76.30%		그렇다	59	71.08%		그렇다	68	78.16%
	무응답	2	1.16%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17. 학년별 분석- 부담 급훈 존재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있다	9	12.68%	중2	있다	31	24.22%	중3	있다	22	14.38%
	없다	62	87.32%		없다	97	75.78%		없다	131	85.62%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있다	63	36.42%	고2	있다	26	31.33%	고3	있다	29	33.33%
	없다	109	63.01%		없다	56	67.47%		없다	58	66.67%
	무응답	1	0.58%		무응답	1	1.20%		무응답	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18. 학년별 분석- 조퇴 자유 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가능	25	35.21%	중2	가능	43	33.59%	중3	가능	58	37.91%
	불가능	46	64.79%		불가능	85	66.41%		불가능	95	62.09%
			0.00%				0.00%				0.00%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가능	56	32.37%	고2	가능	32	38.55%	고3	가능	32	37.21%
	불가능	117	67.63%		불가능	51	61.45%		불가능	54	62.79%
			0.00%				0.00%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6	100%

19. 학년별 분석- 학교 문화, 여가활동 안내 및 지원 여부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지원	39	54.93%	중2	지원	75	58.59%	중3	지원	83	54.25%
	미지원	31	43.66%		미지원	53	41.41%		미지원	70	45.75%
	무응답	1	1.41%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지원	81	46.82%	고2	지원	30	36.14%	고3	지원	33	37.93%
	미지원	90	52.02%		미지원	53	63.86%		미지원	54	62.07%
	무응답	2	1.16%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중학교 분석

		중학교	
지원	197	55.97%	
미지원	154	43.75%	
전체	352	100%	

-고등학교 분석

		고등학교	
지원	144	41.98%	
미지원	197	57.43%	
전체	343	100%	

20. 학년별 분석- 방과후학교, 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빈도	%			빈도	%			빈도	%
중1	선택 가능	46	64.79%	중2	선택 가능	66	51.56%	중3	선택 가능	36	23.53%
	불가능	24	33.80%		불가능	62	48.44%		불가능	117	76.47%
	무응답	1	1.41%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71	100%	집단 합계		128	100%	집단 합계		153	100%
		빈도	%			빈도	%			빈도	%
고1	선택 가능	76	43.93%	고2	선택 가능	43	51.81%	고3	선택 가능	44	50.57%
	불가능	95	54.91%		불가능	39	46.99%		불가능	43	49.43%
	무응답	2	1.16%		무응답	1	1.2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173	100%	집단 합계		83	100%	집단 합계		87	100%

21. 공/사립별 분석- 공/사립학교별 수면 만족 여부

		빈도	%			빈도	%
공립	충분하다	212	34.81%	사립	충분하다	34	34.34%
	부족하다	396	65.02%		부족하다.	65	65.66%
	무응답	1	0.16%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2. 공/사립별 분석- 공/사립별 여가 만족여부

		빈도	%			빈도	%
공립	충분하다	263	43.19%	사립	충분하다	43	43.43%
	부족하다	331	54.35%		부족하다.	56	56.57%
	무응답	15	2.46%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3. 공/사립별 분석-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준비하라고 하거나 예복습을 하라고 한다.

		빈도	%			빈도	%
공립	그렇다	347	56.98%	사립	그렇다	51	51.52%
	아니다	261	42.86%		아니다	48	48.48%
	무응답	1	0.16%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4. 공/사립별 분석-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있다	247	40.56%	사립	있다	49	49.49%
	없다	360	59.11%		없다	50	50.51%
	무응답	2	0.33%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5. 공/사립별 분석- 시험기간이 주말이나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아니다	187	30.71%	사립	아니다	41	41.41%
	그렇다.	416	68.31%		그렇다.	58	58.59%
	무응답	6	0.99%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6. 공/사립별 분석- 학교계시판, 교실의 급훈에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표어가 붙어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있다	162	26.60%	사립	있다	23	23.23%
	없다	445	73.07%		없다	76	76.77%
	무응답	2	0.33%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7. 공/사립별 분석-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조퇴할 수 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가능	213	35.03%	사립	가능	42	42.42%
	불가능	395	64.97%		불가능	57	57.58%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8	100%	집단 합계		99	100%

28. 공/사립별 분석-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지원	299	49.10%	사립	지원	47	47.47%
	미지원	307	50.41%		미지원	52	52.53%
	무응답	3	0.49%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29. 공/사립별 분석-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빈도	%			빈도	%
공립	선택 가능	261	42.86%	사립	선택 가능	54	54.55%
	불가능	344	56.49%		불가능	45	45.45%
	무응답	4	0.66%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9	100%	집단 합계		99	100%

30. 학교분류별 분석- 수면만족여부

		빈도	%			빈도	%
일반계	충분하다	204	34.00%	전문계	충분하다	36	37.89%
	부족하다	395	65.83%		부족하다	59	62.11%
	무응답	1	0.17%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충분하다	0	0.00%	기타	충분하다	5	55.56%
	부족하다	3	100.00%		부족하다	4	44.44%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1. 학교분류별 분석- 여가 만족 여부

		빈도	%			빈도	%
일반계	충분하다	251	41.83%	전문계	충분하다	48	50.53%
	부족하다	334	55.67%		부족하다	47	49.47%
	무응답	15	2.5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충분하다	0	0.00%	기타	충분하다	6	66.67%
	부족하다	3	100.00%		부족하다	3	33.33%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2. 학교분류별 분석- 교사들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거나, 예복습을 하라고 한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그렇다	356	59.33%	전문계	그렇다	37	38.95%
	아니다	243	40.50%		아니다	58	61.05%
	무응답	1	0.17%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그렇다	3	100.00%	기타	그렇다	1	11.11%
	아니다	0	0.00%		아니다	8	88.89%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3. 학교분류별 분석- 학교에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있다	250	41.67%	전문계	있다	37	38.95%
	없다	348	58.00%		없다	58	61.05%
	무응답	2	0.33%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있다	3	100.00%	기타	있다	5	55.56%
	없다	0	0.00%		없다	4	44.44%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4. 학교분류별 분석- 시험기간이 주말이나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아니다	187	31.17%	전문계	아니다	36	37.89%
	그렇다	407	67.83%		그렇다	59	62.11%
	무응답	6	1.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아니다	1	33.33%	기타	아니다	3	33.33%
	그렇다	2	66.67%		그렇다	6	66.67%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5. 학교분류별 분석- 학교게시판, 교실의 급훈에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표어가 붙어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있다	158	26.33%	전문계	있다	25	26.32%
	없다	442	73.67%		없다	68	71.58%
	무응답		0.00%		무응답	2	2.11%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있다	1	33.33%	기타	있다	1	11.11%
	없다	2	66.67%		없다	8	88.89%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6. 학교분류별 분석-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조퇴할 수 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가능	208	34.72%	전문계	가능	42	44.21%
	불가능	391	65.28%		불가능	53	55.79%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599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가능	2	66.67%	기타	가능	2	22.22%
	불가능	1	33.33%		불가능	7	77.78%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7. 학교분류별 분석-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 여가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지원	295	49.17%	전문계	지원	44	46.32%
	미지원	302	50.33%		미지원	51	53.68%
	무응답	3	0.5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지원	1	33.33%	기타	지원	5	55.56%
	미지원	2	66.67%		미지원	4	44.44%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8. 학교분류별 분석 -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가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빈도	%			빈도	%
일반계	선택 가능	240	40.00%	전문계	선택 가능	68	71.58%
	불가능	357	59.50%		불가능	26	27.37%
	무응답	3	0.50%		무응답	1	1.05%
집단 합계		600	100%	집단 합계		95	100%
		빈도	%			빈도	%
특수목적	선택 가능	2	66.67%	기타	선택 가능	4	44.44%
	불가능	1	33.33%		불가능	5	55.56%
	무응답		0.00%		무응답		0.00%
집단 합계		3	100%	집단 합계		9	100%

39. 교차분석- 수면만족도별 휴식감정(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초조하다	56	12.47%	158	18.65%
편안하다	134	29.84%	116	13.70%
쉬운 것 같지 않다	70	15.59%	246	29.04%
불안하다	24	5.35%	66	7.79%
즐겁다	124	27.62%	141	16.65%
불편하다	26	5.79%	68	8.03%
죄책감이 든다	12	2.67%	44	5.19%
당황스럽다	3	0.67%	8	0.94%
집단 합계	449	100%	847	100%

40. 교차분석- 수면만족도별 휴식방해요인(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공부시간	139	34.84%	331	46.69%
눈치	92	23.06%	107	15.09%
문화 시설 부족	29	7.27%	44	6.21%
불안/경쟁의식	77	19.30%	131	18.48%
휴게 시설 부족	30	7.52%	70	9.87%
방해 요인 없음	32	8.02%	26	3.67%
집단 합계	399	100%	709	100%

41. 교차분석- 수면만족도별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인식개선	96	22.64%	235	27.29%
공부시간 줄이기	116	27.36%	260	30.20%
휴게공간 확충	56	13.21%	82	9.52%
문화시설 확충	43	10.14%	53	6.16%
자치활동 지원 강화	30	7.08%	51	5.92%
입시 경쟁 개혁	72	16.98%	175	20.33%
필요없음	11	2.59%	5	0.58%
집단 합계	424	100%	861	100%

42. 교차분석- 여가만족도별 휴식시 감정(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초조하다	76	13.72%	134	18.72%
편안하다	158	28.52%	85	11.87%
신 것 같지 않다	84	15.16%	224	31.28%
불안하다	31	5.60%	57	7.96%
즐겁다	147	26.53%	115	16.06%
불편하다	31	5.60%	62	8.66%
죄책감이 든다	24	4.33%	31	4.33%
당황스럽다	3	0.54%	8	1.12%
집단 합계	554	100%	716	100%

43. 교차분석- 여가만족도별 휴식 방해 요인(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공부시간	179	36.09%	283	40.96%
눈치	122	24.60%	174	25.18%
문화 시설 부족	31	6.25%	40	5.79%
불안/경쟁의식	87	17.54%	118	17.08%
휴게 시설 부족	40	8.06%	55	7.96%
방해 요인 없음	37	7.46%	21	3.04%
집단 합계	496	100%	691	100%

44. 교차분석- 여가만족도별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2개 응답)

	충분하다	%	부족하다	%
인식개선	132	24.44%	192	26.74%
공부시간 줄이기	138	25.56%	229	31.89%
휴게공간 확충	71	13.15%	61	8.50%
문화시설 확충	47	8.70%	47	6.55%
자치활동 지원 강화	43	7.96%	37	5.15%
입시 경쟁 개혁	96	17.78%	149	20.75%
필요없음	13	2.41%	3	0.42%
집단 합계	540	100%	718	100%

45. 교차분석- 학년별 휴식시 느끼는 감정(2개 응답)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초조하다	29	21.80%	33	14.73%	49	17.31%	60	18.93%	19	12.26%	20	12.50%
편안하다	29	21.80%	48	21.43%	62	21.91%	53	16.72%	24	15.48%	28	17.50%
쉬 것 같지 않다	22	16.54%	48	21.43%	72	25.44%	81	25.55%	43	27.74%	43	26.88%
불안하다	2	1.50%	18	8.04%	14	4.95%	34	10.73%	10	6.45%	12	7.50%
즐겁다	36	27.07%	59	26.34%	58	20.49%	50	15.77%	28	18.06%	30	18.75%
불편하다	12	9.02%	14	6.25%	20	7.07%	17	5.36%	15	9.68%	14	8.75%
죄책감이 든다	2	1.50%	3	1.34%	7	2.47%	19	5.99%	12	7.74%	12	7.50%
당황스럽다	1	0.75%	1	0.45%	1	0.35%	3	0.95%	4	2.58%	1	0.63%
집단 합계	133	100%	224	100%	283	100%	317	100%	155	100%	160	100%

46. 교차분석- 학년별 휴식 방해요인(2개 응답)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부시간	46	38.33%	75	34.88%	104	41.11%	122	40.00%	58	40.56%	57	37.75%
눈치	28	23.33%	68	31.63%	58	22.92%	65	21.31%	33	23.08%	43	28.48%
문화시설 부족	9	7.50%	13	6.05%	14	5.53%	16	5.25%	10	6.99%	7	4.64%
불안/경쟁의식	18	15.00%	28	13.02%	35	13.83%	67	21.97%	29	20.28%	28	18.54%
휴게시설 부족	10	8.33%	24	11.16%	29	11.46%	18	5.90%	9	6.29%	9	5.96%
없음	9	7.50%	7	3.26%	13	5.14%	17	5.57%	4	2.80%	7	4.64%
집단 합계	120	100%	215	100%	253	100%	305	100%	143	100%	151	100%

47. 교차분석- 학년별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2개 응답)

	중1		중2		중3		고1		고2		고3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식 개선	44	33.08%	55	24.44%	59	21.00%	78	24.38%	43	29.05%	45	28.85%
공부시간 줄이기	42	31.58%	75	33.33%	85	30.25%	91	28.44%	35	23.65%	40	25.64%
휴게공간 확충	17	12.78%	27	12.00%	32	11.39%	28	8.75%	15	10.14%	16	10.26%
문화시설 확충	9	6.77%	14	6.22%	25	8.90%	26	8.13%	12	8.11%	8	5.13%
자치활동 지원 강화	7	5.26%	15	6.67%	15	5.34%	20	6.25%	14	9.46%	11	7.05%
입시경쟁	11	8.27%	38	16.89%	61	21.71%	74	23.13%	29	19.59%	31	19.87%
필요없음	3	2.26%	1	0.44%	4	1.42%	3	0.94%	0	0.00%	5	3.21%
집단 합계	133	100%	225	100%	281	100%	320	100%	148	100%	156	100%

48. 교차분석- 공/사립별 휴식감정(2개 응답)

	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초조하다	184	16.46%	30	16.67%
편안하다	217	19.41%	33	18.33%
쉬 것 같지 않다	272	24.33%	44	24.44%
불안하다	81	7.25%	10	5.56%
즐겁다	227	20.30%	39	21.67%
불편하다	81	7.25%	13	7.22%
죄책감이 든다	48	4.29%	8	4.44%
당황스럽다	8	0.72%	3	1.67%
집단 합계	1118	100%	180	100%

49. 교차분석- 공/사립별 휴식방해요인(2개 응답)

	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공부시간	405	39.05%	66	38.15%
눈치	261	25.17%	39	22.54%
문화시설 부족	60	5.79%	13	7.51%
불안/경쟁의식	172	16.59%	36	20.81%
휴게시설 부족	93	8.97%	7	4.05%
없음	46	4.44%	12	6.94%
집단 합계	1037	100%	173	100%

50. 교차분석- 공/사립별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2개 응답)

	공립		사립	
	빈도	%	빈도	%
인식 개선	288	25.92%	44	25.00%
공부시간 줄이기	323	29.07%	53	30.11%
휴게공간 확충	122	10.98%	16	9.09%
문화시설 확충	85	7.65%	11	6.25%
자치활동 지원 강화	73	6.57%	9	5.11%
입시경쟁	208	18.72%	39	22.16%
필요없음	12	1.08%	4	2.27%
집단 합계	1111	100%	176	100%

51. 교차분석- 학교분류별 휴식시 느끼는 감정(2개 응답)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초조하다	184	16.74%	28	16.09%	1	20.00%	1	5.56%
편안하다	205	18.65%	37	21.26%	1	20.00%	6	33.33%
쉼 것 같지 않다	267	24.29%	42	24.14%	1	20.00%	6	33.33%
불안하다	79	7.19%	11	6.32%	0	0.00%	1	5.56%
즐겁다	233	21.20%	30	17.24%	1	20.00%	1	5.56%
불편하다	81	7.37%	12	6.90%	0	0.00%	1	5.56%
죄책감이 든다	43	3.91%	10	5.75%	1	20.00%	2	11.11%
당황스럽다	7	0.64%	4	2.30%	0	0.00%	0	0.00%
집단 합계	1099	100%	174	100%	5	100%	18	100%

52. 교차분석- 학교분류별 휴식 방해요인(2개 응답)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공부시간	403	39.39%	58	35.80%	3	50.00%	6	35.29%
눈치	262	25.61%	34	20.99%	0	0.00%	3	17.65%
문화시설 부족	57	5.57%	14	8.64%	2	33.33%	0	0.00%
불안/경쟁의식	172	16.81%	32	19.75%	1	16.67%	3	17.65%
휴게시설 부족	86	8.41%	13	8.02%	0	0.00%	1	5.88%
없음	43	4.20%	11	6.79%	0	0.00%	4	23.53%
집단 합계	1023	100%	162	100%	6	100%	17	100%

53. 교차분석- 학교분류별 휴식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2개 응답)

	일반계		전문계		특수목적		기타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인식 개선	281	25.83%	46	26.44%	2	33.33%	3	17.65%
공부시간 줄이기	325	29.87%	45	25.86%	1	16.67%	5	29.41%
휴게공간 확충	114	10.48%	20	11.49%	2	33.33%	1	5.88%
문화시설 확충	79	7.26%	15	8.62%	0	0.00%	2	11.76%
자치활동 지원 강화	70	6.43%	10	5.75%	0	0.00%	1	5.88%
입시경쟁	207	19.03%	35	20.11%	1	16.67%	4	23.53%
필요없음	12	1.10%	3	1.72%	0	0.00%	1	5.88%
집단 합계	1088	100%	174	100%	6	100%	17	100%

54. 교차분석- 쉬는시간, 점심시간 예복습 압박과 휴식시 느끼는 감정

	예복습 요구함		요구하지 않음		집단합계	%
초조하다	146	68.22%	68	31.78%	214	100%
편안하다	115	46.00%	135	54.00%	250	100%
신 것 같지 않다	185	58.54%	131	41.46%	316	100%
불안하다	59	64.84%	32	35.16%	91	100%
즐겁다	139	52.26%	127	47.74%	266	100%
불편하다	61	64.89%	33	35.11%	94	100%
죄책감이 든다	32	57.14%	24	42.86%	56	100%
당황스럽다	5	45.45%	6	54.55%	11	100%

55. 교차분석- 휴식공간 유무와 휴식시 느끼는 감정

	휴식공간 있음		휴식공간 없음		집단합계	%
초조하다	79	37.09%	134	62.91%	213	100%
편안하다	121	48.59%	128	51.41%	249	100%
신 것 같지 않다	117	37.03%	199	62.97%	316	100%
불안하다	36	39.56%	55	60.44%	91	100%
즐겁다	124	46.79%	141	53.21%	265	100%
불편하다	29	30.85%	65	69.15%	94	100%
죄책감이 든다	30	54.55%	25	45.45%	55	100%
당황스럽다	3	27.27%	8	72.73%	11	100%

56. 교차분석- 휴식 감정별 주말/연휴를 낀 시험기간 여부

	그렇다		아니다		집단합계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조하다	147	69.67%	64	30.33%	211	100%
편안하다	163	65.73%	85	34.27%	248	100%
신 것 같지 않다	221	70.61%	92	29.39%	313	100%
불안하다	72	79.12%	19	20.88%	91	100%
즐겁다	170	64.64%	93	35.36%	263	100%
불편하다	48	51.06%	46	48.94%	94	100%
죄책감이 든다	45	80.36%	11	19.64%	56	100%
당황스럽다	5	45.45%	6	54.55%	11	100%

57. 교차분석- 휴식 감정별 휴식에 부담을 주는 급훈의 존재 여부

	있다		없다		집단합계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조하다	63	29.58%	150	70.42%	213	100%
편안하다	50	20.08%	199	79.92%	249	100%
신 것 같지 않다	97	30.70%	219	69.30%	316	100%
불안하다	29	32.22%	61	67.78%	90	100%
즐겁다	52	19.55%	214	80.45%	266	100%
불편하다	28	29.79%	66	70.21%	94	100%
죄책감이 든다	23	41.07%	33	58.93%	56	100%
당황스럽다	4	36.36%	7	63.64%	11	100%

58. 교차분석- 휴식 감정별 자유로운 조퇴 가능 여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집단합계	%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초조하다	75	35.21%	138	64.79%	213	100%
편안하다	123	49.20%	127	50.80%	250	100%
신 것 같지 않다	89	28.16%	227	71.84%	316	100%
불안하다	27	30.00%	63	70.00%	90	100%
즐겁다	121	45.49%	145	54.51%	266	100%
불편하다	20	21.28%	74	78.72%	94	100%
죄책감이 든다	19	33.93%	37	66.07%	56	100%
당황스럽다	3	27.27%	8	72.73%	11	100%

59. 교차분석- 휴식감정별 학교의 문화/여가 안내 및 지원 가능 여부

	안내 지원 가능		안내 지원 불가능		집단합계	%
초조하다	100	46.95%	113	53.05%	213	100%
편안하다	147	58.80%	103	41.20%	250	100%
쉼 것 같지 않다	140	44.44%	175	55.56%	315	100%
불안하다	34	37.78%	56	62.22%	90	100%
즐겁다	159	60.23%	105	39.77%	264	100%
불편하다	30	31.91%	64	68.09%	94	100%
죄책감이 든다	22	40.00%	33	60.00%	55	100%
당황스럽다	3	27.27%	8	72.73%	11	100%

60. 교차분석- 휴식감정별 방과후교실/야간자율학습 참가 선택 가능 여부

	선택 가능		선택 불가능		집단합계	%
초조하다	87	41.23%	124	58.77%	211	100%
편안하다	150	60.24%	99	39.76%	249	100%
쉼 것 같지 않다	109	34.49%	207	65.51%	316	100%
불안하다	30	32.97%	61	67.03%	91	100%
즐겁다	159	60.46%	104	39.54%	263	100%
불편하다	37	39.36%	57	60.64%	94	100%
죄책감이 든다	14	25.45%	41	74.55%	55	100%
당황스럽다	2	18.18%	9	81.82%	11	100%

『 학생 휴식에 관한 인천지역학생 설문조사 』

본 설문조사는 인천지역 학생들의 휴식권이 잘 보장되는지, 학생들이 누리는 휴식의 질이 어떤지에 대해 학생들의 경험과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진행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솔직하고, 자유롭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은 익명으로 진행되니 안심하고 참여해주세요.

- 설문조사 기간: 2014년 5월 10일 ~ 6월 29일 (8주간)
- 설문조사 대상: 인천지역 중·고등학교 재학생
- 설문조사 문의: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인천지역모임 asunaro.or.kr

학교

학년

1. 수면시간(잠자는 시간)은 평균(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평일]	시간	[주말]	시간
------	----	------	----

1-1. 현재의 수면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

2. 수면시간을 제외한 여가·휴식시간은 하루에 보통 얼마나 되시나요?

[평일]	시간	[주말]	시간
------	----	------	----

2-1. 현재의 여가·휴식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 <input type="checkbox"/>	아니다 <input type="checkbox"/>
------------------------------	------------------------------

3. 다니시는 학교의 등·하교 시간은 몇 시 인가요? (시간이 일정하지 않을 경우 주로 등·하교하는 시간으로 적어주세요.)

[등교]	시	분	[하교]	시	분
------	---	---	------	---	---

4. 다음은 학교에서의 학생휴식 실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인의 생각에 자유롭게 체크해주세요.

질문	그렇다	아니다
① 교사들이 쉬는시간, 점심시간에도 수업을 미리 준비하라고 하거나, 예·복습을 하라고 한다.		
② 학교에는 학생들을 위한 휴식공간이 있다.		
③ 시험기간이 주말이나 연휴 중간 또는 이후에 있다. (ex: 5월 어린이날·석가탄신일 전후/ 9월 추석연휴기간 전후 등)		
④ 학교 게시판, 교실의 급훈에 휴식에 대한 부담을 주는 표어가 붙어있다. (ex: 네 성적에 잠이 오냐? / 대학가서 미팅할래? 공장가서 미싱할래? 등)		
⑤ 아플 때 눈치 보지 않고 조퇴할 수 있다.		
⑥ 학교에서 다양한 문화활동과 여가활동에 대한 안내를 듣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⑦ 방과후학교, 야간자율학습 참가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5. 여러분이 쉴 때 주로 느끼는 기분이나 감정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 ① 초조하다. (ex: 숙제, 수행평가 등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생각나서)
- ② 편안하다. (ex: 쉴 때는 어떤 부담이나 걱정 없이 몸과 마음이 편안해서)
- ③ 신 것 같지 않다. (ex: 쉬는 시간이 너무 짧아서)
- ④ 불안하다. (ex: 쉬는 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뒤쳐질까봐, 쉬고 나서 혼날까 걱정돼서)
- ⑤ 즐겁다. (ex: 휴식 때 취미활동, 문화활동 등을 즐겁게 즐길 수 있어서)
- ⑥ 불편하다. (ex: 부모나 교사의 눈치가 보여서)
- ⑦ 죄책감이 든다. (ex: 자신이 게으르게 느껴져서)
- ⑧ 당황스럽다 (ex: 휴식 시간에 뭘 해야 할지 몰라서)
- ⑨ 기타 ()

선 택		
--------	--	--

6. 여러분의 휴식시간을 가장 방해한다 생각되는 것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 ① 학교수업, 방과후학교, 야자, 학원, 과외, 수행평가, 숙제 등 입시 관련 공부시간.
- ② 교사, 부모 등 어른들의 눈치.
- ③ 문화생활, 동아리활동 등 놀거나 즐길 수 있는 문화 관련 시설 및 지원의 부족.
- ④ 쉬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보다 뒤쳐질 것 같다는 불안감 및 경쟁의식.
- ⑤ 학생휴게실 등 학생들이 편안히 쉴 수 있는 공간의 부족.
- ⑥ 휴식을 방해하는 것이 없다.
- ⑦ 기타 ()

선 택		
--------	--	--

7.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위해 여러분에게 필요한 시간은 하루에 평균 몇 시간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수면시간]	시간	[휴식시간]	시간
--------	----	--------	----

8. 학생들이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2개** 자유롭게 선택해주세요.

- ① 학생들의 휴식에 대한 교사, 학부모 등 어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 ② 학교수업, 방과후학교, 야자, 학원, 과외, 수행평가 등 입시 관련 공부시간을 줄여야 한다.
- ③ 학생휴게실 등 학생들이 편안히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한다.
- ④ 다양한 문화시설 및 각종 문화활동에 대한 할인혜택 등 지원이 늘어나야 한다.
- ⑤ 학생동아리,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 ⑥ 경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도록 위해 입시경쟁 교육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 ⑦ 필요한 것이 없다.
- ⑧ 기타 ()

선 택		
--------	--	--

- 끝 -

감사합니다. :-]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